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
'스님들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구리·춘천·강릉지역

이렇게 좋은 기회...

꼭 컴맹 탈출 해야지!

경기도 구리와 강원도 춘천, 강릉 지역 스님들이 컴퓨터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후원하는 제2차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이 2일 춘천 우체국 4층 정보화교육실에서 개강했다. 이 지역 스님 12명이 등록한 첫날 교육에서 스님들은 "그간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컴맹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 사암연합회 등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해 온 스님들이어서 컴퓨터 교육장에서의 만남도 각별하다. 무문암의 승보스님은 개강 첫날 "이렇게 같이 공부할 기회가 되니 강원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번 교육을 받고 난 후 사용할 컴퓨터를 이미 장만해 왔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은 27일까지 매



◇춘천 우체국 정보화교육실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스님들.

“강원에 온 느낌... 사용할 컴퓨터 이미 장만”

높은 출석률, 벌써 중급과정까지 예약도

주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두 시간 을 배우게 된다. 이날 개강에 앞서 손승현 씨 원도우 98과 한글97, 인터넷 기초 과정 춘천우체국장은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과

다담 시간을 갖고 "사찰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포교를 해야 하는 시대가니만큼 이번 교육이 스님들의 포교와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일부터 개강하는 강릉지역의 무료교육에도 6일 현재 10여명이 등록 신청을 했다. 또 5월 19일 구리우체국 정보화교육실에서 개강한 제1차 '스님들을 위한 컴퓨터 무료교육'에 참가한 구리 남양주 지역 스님들도 매우 높은 출석률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스님들이 한 달간의 초급과정을 마치고 중급과정을 배우겠다고 예약을 해 왔다. 구리우체국 정보화 교육 강사 신희택씨는 "적극적으로 배우는 스님들을 대하면 힘이 절로 나고 맘이 편해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의 세 번째 문을 7월 충북 단양에서 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llm@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법만사 신도회장 이희삼(가운데)·부회장 오상욱(왼쪽)·총무 김석화(오른쪽)이 손수 제작한 옷들을 들어 내보이며 자랑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묵묵히, 열심히...

서울 법만사 신도 3총사

“부처님 일이라면 잘하면서 나한테만 잘 못해, 섭섭하단 말씀이야.”

“에~이, 스님! 바쁘셨잖아요. 법복을 놓고 가셨어야죠.”

2월 서울 중랑구 법만사 종무실. 주지 법만스님과 신도 3총사가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된다. 법단은 스님이 해어진 법복을 기워달라는 부탁만 해놓고, 정작 법복을 주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질세라, 신도 회장 이희삼(법명법명 선법심·66)이 포문을 연다. 기다렸

다는 듯이 부회장이 오상욱(법명 묘심화·51)과 총무 김석화(법명법명 선정심·50)의 지원 사격이 쏟아진다. 이렇다 보니 늘 지는 쪽은 법만 스님. 그래도 돌아서면 웃음꽃이 피어난다.

법만사 신도회의 힘은 왕성한 신행활동에서 시작된다. 지난 81년 법만사 창건 시점부터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온 이희삼 회장은 점점 살림을 휘둘러다보지 않음, 법만사 터줏대감이다. 이 보살은 전신도들의 화합을 이끄는 것은 물론, 행사 때마다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이다.

신도회합, 상담, 의복공양 등 척척

“부처님 좋아요” 인사하기 운동 전개

김석화 총무는 옷 만드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 짚어서 배운 재봉틀 기술로, 그간

손수 만든 생활한복, 기도복만 300여 벌이 넘는다. 김 총무가 10년 전부터 ‘의복공양’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신도들이 좀더 편안 복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였다.

이들 3총사는 이번 달부터 ‘부처님이 좋아요!’ 라는 인사하기 운동을 벌인다. 주지 스님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항상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공양하자는 취지에서이다.

김철우 기자

추천의 말
법만스님 서울 법만사 주지

보이지 않게 거룩한 일들을 묵묵히 해온 보살님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손색없을 정도로 후원, 공양간, 법당을 오가며 오늘의 법만사를 이끌어온 분들입니다.

우리 절 주춧돌 같은 존재

다.이희삼 회장님은 모든 행사 기획을, 오상욱 부회장은 공양주를, 김석화 총무님은 자원봉사활동을 맡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법만사에서 없어서 안 될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법륜스님 아프간 미군기지에서 법문

미군측 요청에 기지법회로 확대 진행

강연후 명상지도, 국군방문 병사 격려



◇법륜스님이 바그람 미군기지서 법문하고 있다.

5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블시 바그람 미군기지서 정교회 지도법사인 법륜스님의 법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바그람 기지내의 한국파견군의 초청으로 법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군측의 요청에 의해 바그람 기지 전체의 행사가 확대됐다. 70 여명의 한국군, 30여명의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 장병들, 20여명의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JTS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륜스님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법”을 주제로 법문했다. 법회 후에는 병사들에 대한 명상지도도 이루어졌다. 법륜스님 일행은 한국군 장교들의 안내로 바그람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 100전설공병대의 주둔지도 방문하여 병사들을 격려했다. 바그람 기지 내 공병대인 다산부대에

는 불자장교들이 많아 JTS의 선주, 법문 법사가 이미 부대 법당 개원식을 연 바 있다.

법륜스님 일행은 이튿날 탈레반 정권에 의하여 파괴된 것, 미비한 대석불을 답사한 뒤 바미안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주둔

군 장교로부터 브리핑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JTS는 카블의 톨라라 지역 이외에 칸다하르나 바미안지역에서의 구조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JTS는 6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개발 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프간=김동훈 통신원

충남종교인연합회 발족 상호존중 바탕으로 활동

충남 지역 종교인연합회가 발족된다. 천안지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직을 충남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충남종교인연합회를 창립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회장으로 법혜스님(금정사 주지)을 선출하고, 공동회장

에 나도현 목사(기독교), 연구스님(만수사 주지), 권희연 신부(성공회), 고진여 교무(원불교) 등을 선임했다. 충남종교인연합회는 발족과 함께 산하에 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천안시, 아산시, 서산군 등 도내 다른 시군 종교지도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대표회장 법혜스님은 “종교인들의 화해와 교류를 위해 결성된 만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강릉 굴산사지 사적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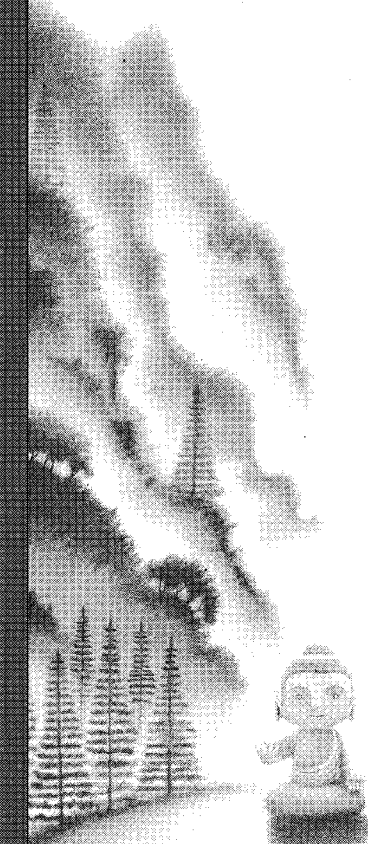
강원도 기념물 11호인 강릉 굴산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2일 강릉 굴산사지(448호)와 영월 정양산성(446호), 원주 영원산성(447호)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했다. 굴산사지는 범일국사(810~889)가 신라 문성왕 13년(851) 창건한 사찰로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장 번창했던 사굴산

문의 본산, 조선 초기 폐사된 이후 농경지로 경작돼 사역조차 모르다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한 긴급 발굴조사에서 법당지와 승방지, 회랑지, 탑지 등이 드러나면서 동서 140m, 남북 250m에 달하는 거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 크기의 당간지주(보물 86호)와 범일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보물 85호), 석불좌상(문화재자료 38호) 등이 남아 있다. 권형진 기자

2 5 4 7
Buddha's
Birthday

아이를 부처님처럼! 가족과 함께 읽는 뜻 깊은 책!



함께 사는 기쁨을 전하는 그림책

고마 돌부처

돌덩이 하나가 굴리와 길실에 쉰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이름 모를 돌장이가 쪼고; 다듬어서 꼬마 돌부처로 만들었습니다. 꼬마 돌부처는 생각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노는 것도 무척 좋아하는데.....

똥! 책장을 넘기면, 꼬마 부처님이 전하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가 술술 피어납니다.



4세 이상 | 36쪽 | 윌리터 | 값 8,000원
글 | 하오 공차이 그림 | 줄리아노 페리

어린이 교과서 함께 30년 (주)에릭슨
www.yearim.co.kr



초등생 | 320쪽 | 윌리터 | 값 9,600원
글·그림 | 이범기

농인
www.nibook.co.kr

만화로 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석가모니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부와 명예를 버리고,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 실천으로 진리를 보여 주신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삶 그 자체가 가르침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고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세요!

